

성공사례 (II)

종암목장(윤병재 사장)은 美辭麗句를 동원하지 않아도 이미 "종축개량"지의 절소부문 '절소 305일 산유량 100위 리스트'란을 통하여 많이 접할 수 있어 굳이 별도의 소개를 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이 가는 목장으로 이해하여도 될 성싶다. 하지만, 간단한 소개를 통하여 이해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충남 예산, 종암목장편 -

낙농입문

종암목장은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시왕2구에 자리잡은 그리 크지 않은 자그마한, 아담한 목장이라 하면 맞는 표현 같다.

본래, 윤병재 사장은 모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평소 축산에 대한 동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바, 부인을 설득하여 고향인 예산으로 내려와 오늘의 목장을 일궈(물론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잊지 않음) 서해안 낙농의 Leader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의 『종암목장』이 있기까지



목장앞에서, 윤병재, 김형숙 부부


오늘의 명성을 얻기까지는 많은 요인들이 있으나 마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요인은 부인(김형숙 여사)을 빼어 놓을 수 없다.

"처음, 고향에 내려와 서울과는 정서적으로 다른 시골의 정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고충이 있었음직도 하지만, 묵묵히 인내하여 준 부인이 고마울 뿐입니다"라고 윤사장은 부인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있다.

윤사장 자신도 적응이 매우 어려운 것은 말하나위 없었다. 분위기는 물론 낙농에 대한 지식과 주변의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었고, 그래서 부인까지 설득하여 정한 일인데, 그저 열심히 일하며, 배우고 실천하는 길밖에 없음을 자각한 윤사장은 백방으로 뛰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우환 등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포자기할 때도 여러 번 있었으나, 그 때마다 부인의 내조가 큰 힘이 되어 오늘을 맞게 되었다고 윤사장은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살짝 보여줬다.



주변에서 흘러가는 얘기들을 윤사장은 열심히 귀동냥하여 자신에게 접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축협과 농협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어느 기관에서건 낙농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열심히 쫓아 다녔던 것이다.

그 중 가장 오늘날 목장의 주요 핵심이 된 것은 “종축개량”만이 살 길임을 알게 되고, 곧바로 종축개량협회로 연락하여 혈통등록을 통한 혈통확립과 심사를 통한 체형개량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이어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종축개량협회’를 잇을 수가 없습니다. 검정을 처음 받던 날 나는 설레이는 가슴으로 『이젠 나도 떳떳한 낙농인, 목장이 되는구나』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저녁 검정을 마치고 식사시간에 그때 당시 검정을 맡았던 종축개량협회 직원은 “이렇게 낙농을 하면 안 됩니다. 30두 착유에 600±20kg 정도 납유하게 되면 경쟁력에서 뒤져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착유우를 모두 처분하고 개량된 후보축을 확보하여 최소 30두 착유에 1,000kg을 납유 하여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선진농가에서 개량해 놓은 후보축을 확보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는 ‘우리 집 소가 최고인줄 알았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였음을 깨닫고, 과감하게 그 말에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천만다행으로 그 당시만 하여도 개량된 후보축을 구입하기가 쉬웠다. 선도 개량농가로부터 초임 만삭우 몇마리는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고능력 젖소 평가 및 경매행사』에서 초임우를 협회 직원들과 상의하여 구입하여 밀소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개량우를 도입하여 관리하면서 왜 개량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젖을 짜는데 불과했지만 구입우들은 젖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착유시설도 종축개량협회 직원의 권유로 계류식 파이프 라인에서 기존 계류사를 그대로 활용하여, 텐덤시스템 2열 3두로 개조하여 편안하게 착유하고 있다.

현재 목장 규모는 착유 40여두(건유우 포함), 초임우 및 육성우 40여두의 전형적인 전업규모의 낙농목장이다. 장비로는 트랙터, 예초기, 초파기, 콧타기, 베일러, 믹서기 등 각종 필요장비와, 사료포 9,000여평에 옥수수를 심어 구입 조사료와 함께 년중 엔실리지 급여를 실현하고 있다.

경영 및 사양관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년중 엔실리지와 구입 조사료,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Semi-TMR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농후사료는 개체별 능력에 따라 자동급이기로 급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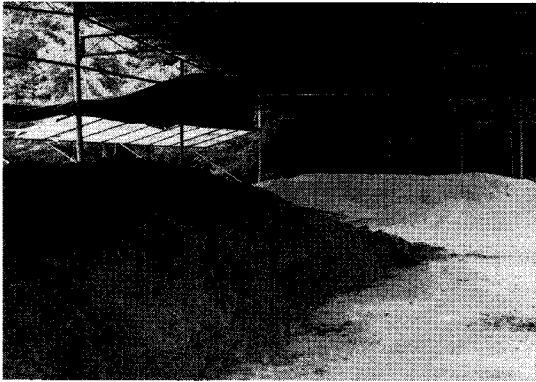
처음으로 돌아가서, 종축개량협회에 검정을 받기 전만 해도 젖소는 농후사료와 볏짚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위험천만의 낙농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육성우를 농후사료 위주로 관리하는 것은 젖소의 관리라기 보다는 비육우 관리가 더욱 적절한 표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현재, 농후사료는 PC를 통하여 개체관리 및 우군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사료 위주로 관리 전환

을 하고 있다.

분뇨처리는 톱밥발효우사로 신축,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지는 퇴비는 퇴비사 2동에 저장하였다가 채소 및 화훼농가에게 유상 공급하고 있어, 완벽한 폐수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톱밥과 퇴비

질병예방은 연간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축사시설 주 1 회 소독, 백신주사, 구충제 투여를 2회/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사의 위치를 고려한 채광, 통풍상태 등의 파악으로 질병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및 부산물은 전량 축협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고 있어 쉽고 간편하게 판매하고 있다.

기타 축산기자재 등의 구입은 낙우회 및 축산인들과 공동구매로 좋은 조건하에 구입하고 있으며, 낙농에 관한 정보획득은 전문서적과 축협,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다.

우수 경영사례

“우리 같이 조그마한 목장에서 자랑거리가 있나요?”라며 한결같이 사양했으나, “굳이 말하라면, 전국 산유능력 검정성적에서 우군 평균성적 10,000 kg 이상으로 상을 받았으며, 경진대회 및 품평회에

서 몇번 입상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역 낙농가사로 위촉받아 후계자 또는 양축가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목장을 방문하는 농가들을 위하여 낙농경영 또는 영농정착 등에 대한 현지사례를 발표하고 있으며, 축산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종축개량협회의 등록, 심사, 검정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선진낙농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윤사장은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 낙농가들의 천진스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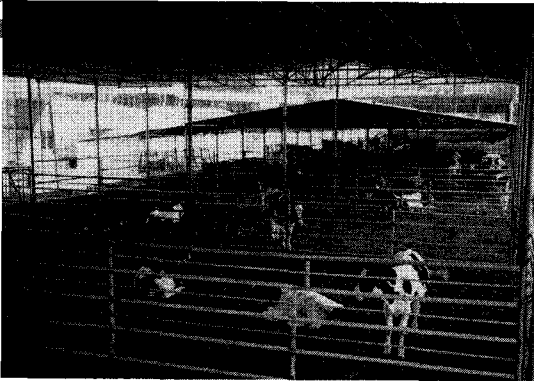
말이 끝난 뒤에 “이미 윤사장님은 우리나라의 선진낙농가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명성을 지키고 후배들을 끌어 주기 위해 더욱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서해안 낙농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장들이 틀림없이 생겨 이 지역을 대표할 것입니다”라고 자기자신을 숨기는 겸손을 보인다.

21C 준비 및 계획

새 천년, 즉 뉴-밀레니엄(New-Millennium)은 서해안 지역이 아마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낙농지대로 부상할 것임은 틀림없으리라 본다.

이렇듯 새로이 각광을 받게될 지역에서 이미 이를 간파하고 낙농을 하고있는 종암목장 윤사장의 혜안은 높이 보인다.

21C의 낙농은 착유 로봇이 착유를 담당한다던지 또는 무인 기계들이 엔실리지를, 운동장 청소를 한다든지 등의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현재보다는 나은 작업환경과 우공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은 자명하다.



단계별로 잘 정리된 육성우사

종암목장 윤사장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준비라고 할까, 하는 맘입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현재보다는 모든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반드시 단위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개량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양관리를 농후사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체형개량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1C의 목표는 50두 착유에 2Ton을 상시 납유하

는 목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수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노력을 배가하면 안될 것도 없겠지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라고 당찬 각오를 서슴없이 밝히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고유 브랜드를 갖는 유제품 가공업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푸른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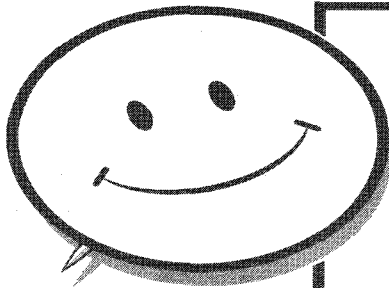
마침 필자가 목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지난번 태풍 ‘올가’가 휩쓸고 지나가 3m가 넘도록 아주 작황이 좋은 옥수수를 다 쓰러뜨려 수작업으로 엔실리지를 하는 날이어서 긴 시간을 갖진 못했으나, 땀방울을 쏟아내리면서 잠잠이 취재에 응해주신 윤사장에게 감사드리며, 모쪼록 바라는 모든 것이 잘 되길 빌며 발길을 돌렸다.

종암목장의 연도별 성적변화(305일성적)

년 도	두 수	유 량(kg)	유지율(%)	비 고
1994	* 39	7,320.21	3.87	
1995	31	8,692.17	3.90	
1996	21	9,201.75	3.89	
1997	31	9,410.00	3.86	
1998	12	10,312.00	3.78	

(주) *는 1993년도 두수 포함

(취재·편집 : 임병순)



삐삐주전지는 식초로 닦는다

삐삐주전지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인이 더러워졌을 때는 닦기가 곤란하다.

이때는 주전지에 물을 넣고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끓이면 된다.